

티베트 동전의 문양연구*

이정환**

<目 次>

1. 머리말
2. 연구의의 및 연구범위
3. 선행연구
4. 동전에 나타난 문양
 - 1) 해, 달, 산, 구름
 - 2) 사자
 - 3) 노부
 - 4) 자시다개
 - 5) 만다라
5. 맺음말

1. 머리말

티베트는 예부터 금을 사용했다.¹⁾ 금은 먼 과거 물물교환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가치가 크고 부피가 작았기 때문에 휴대하거나 보관에 유리하였다. 특히

* 이 논문은 2018학년도 배재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습니다.

** 배재대학교 주시경대학 글로벌교육부 조교수

1) 금의 사용을 기록한 것으로 가장 이른 것은 마오줄락쟁와(dpav bo gtsug lag vphreng ba)가 지은 『캐배까된(mkhas pvi dgav ston)』의 토번왕조부분이다. 7세기경 치퀸(khri btsun)공주와 문성공주를 토번으로 데려올 때 금화를 사용하였고, 문자를 만들기 위해 된 미삼보자(thon mi sambho dra)를 인도에 보낼 때에도 금화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 같은 책에서 이보다 이른 부데쿵개(pu de gung rgyal)시기에 광석을 캐서 금, 은, 동, 철 등을 제련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시기적으로 기원 전후로 보여 진다. 이것으로 보아 티베트의 금의 사용은 매우 오랜 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티베트어 발음은 라사어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금은 먼 거리를 이동하는 데 편리하게 사용되었다. 이때의 금은 단지 금 자체로서의 가치만 있었지 예술적 가치는 아무래도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을 것이다. 때문에 금은 무게에 따라 그 가치가 매겨졌다. 무게에 따라 가치를 달리한 것은 금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은이 그랬고, 약초와 버터, 곡식 등도 무게를 따랐다. 이러한 과정은 도량형의 통일로 이어졌으며²⁾, 그것은 곧 동전³⁾ 탄생의 배경이 되었다. 동전도 무게에 따라 그 가치를 달리 했지만 기존과 다른 것은 문양의 출현이었다.

기존의 귀금속이 단지 무게만 중시했다면 동전은 생김새부터 그 표면에 어떤 문양을 새기느냐에 따라 돈의 가치를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다르다. 물론 전적으로 동전에 새겨진 문양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다만 동전에 어떤 사상을 내포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양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티베트는 불교의 나라이다. 특히 동전이 만들어질 당시의 상황은 불교가 티베트에 들어온 지(7세기) 이미 1000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불교화한 상태였다. 따라서 티베트에게 불교는 삶의 일부가 되었고, 그들의 사고도 불교적인 인식을 벗어날 수 없었다. 그렇기에 동전 역시 이들의 삶의 흔적, 즉 자신들의 종교관, 세계관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이 만든 동전의 문양을 통해 어떤 것들을 추구하려고 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과거의 유물을 통해 오늘의 티베트인을 이해하려는 한 방법이다. 동전의 문양 연구가 티베트 문화 전체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필자의 연구가 티베트 동전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인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이러한 시도를 통해 티베트 문화를 연구하는 각도가 조금은 더 다양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2) 도량형의 통일에 대한 기록은 2010년 중앙 민족대학교에서 출판한 번역본 바오줄락칭와의 『캐배까원』 52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3) 여기서 동전은 단지 동으로 만들어진 화폐를 뜻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금화, 은화, 동화를 포함한 것을 지칭한다. 이것은 영어로 동전을 코인이라고 하는 것과 부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동전에 대한 범위는 금화, 은화, 동화를 포함한 것이다.

2. 연구의의 및 연구범위

1) 연구의의

동전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물건이고 동전에 새겨진 도상이나 문양은 종교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는 현실세계와는 다른 이상의 또 다른 세계를 표현한다. 여기서 동전은 물질로 구성된 속(俗)에 해당되고, 그 안에 그려진 문양은 성(聖)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동전은 물질이면서 정신세계를 동시에 재현시키는 존재로 성과 속이라는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인간세상과 종교적인 세상을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티베트인에게 돈은 세속적인 것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진다. 때문에 돈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상업 종사자들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는 정신세계를 중시하고 물질을 등한시하는 불교적인 사고방식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돈은 물물교환 이후로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다. 돈은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물물교환에서 오는 불편함을 해소하기에 적합했다. 특히 티베트에 통일왕조인 토번이 들어서면서 경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도량형의 통일은 보다 효율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

토번은 무게, 길이, 넓이 등의 전반적인 분야에 동일한 계산법을 적용하였다. 당시 귀금속에 해당되었던 금과 은에 대한 계산법도 만들어졌다. 금은 티베트의 전통적인 화폐였다. 토번왕조를 세운 송첸캄보(srong btsan sgam po)가 네팔의 치췌(khri btsun)공주와 당의 문성공주를 데리고 올 때에도 그 대가로 금화와 사금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토번왕조시기에 이미 금화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⁴⁾ 이때 사용되었던 금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티베트에서 만든 금화였는지 아니면 네팔이나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금화였

4) 닉충오마빠조쌍보 저, 陳慶英 역, 『漢藏史集(rgya bod yig tshang)』, 西藏人民出版社, 1986. 12. 82, 84쪽. 마오줄락첵와(dpav bo gtsug lag vphreng ba)저, 黃顥, 周潤年 역, कैभाकैढ(mkhas pvi dgav ston)-토번사(bod kyi rgyal rabs), 中央民族大學出版社, 2010. 56, 58쪽.

는지 불분명하고, 금화에 어떤 문양이 새겨져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더욱 알 수가 없다. 하지만 티베트는 페르시아와 교류를 하고 있었고, 또 실크로드가 번성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티베트 금화가 아닌 다른 나라의 금화가 통용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현 칭하이(青海) 하이베이티베트자치주(海北藏族自治州)에서 로마시대의 금화가 발견된 사실은 이런 추측이 타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티베트가 토번시대에 금화를 화폐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고, 토번이 멸망한 이후에도 수많은 티베트인은 인도의 유학자금으로 금을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금은 티베트인에게 필수적인 존재였지만 이미 커진 경제의 규모에 비해서 부족했다. 따라서 금 보다 값싸고 흔한 은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후에는 은보다 더 흔한 동을 사용하게 되었다.

일상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돈, 이 돈에 티베트인은 자신들의 이상세계를 새겨 넣었다. 마치 인간이 속세에 있으면서 석가모니의 깨달음을 추구하듯 티베트인은 가장 물질적인 대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세계를 표현하려고 하였다. 동전에서 이상 세계에 대한 표현은 동전에 나타난 문양을 통해 드러난다. 동전의 문양은 대부분 불교와 관련된 것들이며, 여기에는 티베트만의 특징인 문자도 포함된다. 티베트 동전에 나타난 문양은 대체적으로 금화와 은화 및 동화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그 문양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산, 구름, 해, 달, 사자, 상서로운 여덟 가지 문양(자시다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꽃무늬, 만다라 형상, 보물(노부린보체), 용 등이 있으며, 문자로는 티베트어로 새겨진 숫자와 정부를 나타내는 ‘가덴 포장첼래남개(dgav ldan pho brang phyod las rnam rgyal)’ 및 돈의 단위 등이 있다. 티베트 동전을 해독하는 데에는 몇 가지 특징을 반드시 이해해야만 한다. 이는 동전의 발행연도와 역사적 배경을 알려주는 중요한 부분으로 동전에 나타난 상징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특히 발행연도에는 ‘럽츄(rab byung)’이란 티베트만의 계산 방법이 적용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간단하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티베트인은 동전이라는 지극히 세속적인 도구에도 그들의 이상세계를 표현하려고 하였으며, 이를 위해 자신들의 세계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양

을 선택하였다. 그 문양에는 티베트인의 세계관과 역사문화적인 배경이 담겨 있기에, 우리는 동전을 통해 티베트 문화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범위

본 연구는 동전에 나타난 문양에 대한 검토이다. 동전에 나타난 문양은 다양하다. 그 문양은 티베트라는 제한된 장소와 티베트에 동전이 제작되고 유통되었던 시간적 제한을 반영한다. 티베트가 대외적으로 알려진 시기는 7세기경에 송젠캄보리는 왕이 작은 국가들을 통일하고 토번⁵⁾이라는 국가를 건설하면서부터이다. 이때부터 티베트는 동아시아의 강국이었던 당과 영토전쟁을 빈번하게 치렀다. 특히 실크로드가 가장 첨예하게 부딪혔던 곳으로 지금도 당시의 처절했던 흔적을 둔황이나 미란고성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한 때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을 점령할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토번은 랑다마(glang dar ma)를 마지막으로 분열 상태에 들어갔다. 그 후로 티베트에는 다시는 통일왕조가 탄생하지 않았다. 단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여러 왕조가 탄생하였으며, 불교는 그들의 지원을 받아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구계왕국(10세기~17세기)의 하라마예세외(lha bla ma ye she vod)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구계왕국을 통해 들어온 아디샤(atisa)의 새로운 밀교는 줌뎀바(vbrom ston pa), 종카바(tsong kha pa), 달라이라마로 이어지면서 종교의 혁신과 더불어 새로운 권력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하였지만 토번시기에 이미 금화나 은화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당시에 사용된 금화나 은화가 어떤 형태였는지는 불분명하다.

이것은 티베트의 토번이 멸망한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왕조가 동전을 제조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아직까지 발견된 것은 없다. 단지 금과

5) 토번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신당서』에 의해서이다. 토번은 티베트어의 '토피(tho bod)'를 음역한 것으로 보인다. 둔황의 장경동에서 발견된 티베트 문헌은 이를 뒷받침한다. 여기서 '토'는 '높다', '크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즉 '토피'는 '위대한 티베트'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다. 티베트인은 전통적으로 자신을 지칭할 때 '토피바(bod pa)'라고 한다.

은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까귀파(bkav brgyud pa)의 조사인 마바(mar pa, 11세기)가 구법을 위해 인도에 가서 사용한 것이 금이었고, 구계에서 아디샤를 초청할 때에도 금이 사용되었다. 금은 영원한 화폐였다.

지금과 같은 동전 형태의 화폐가 등장한 것은 1640년 전후였다. 당시 티베트는 네팔과의 상품 교류에서 은을 사용하였는데, 네팔은 티베트의 은을 가져간 후 은화를 만들어 티베트에 유통시키는 방식으로 이윤을 남겼다. '모하'은화가 그 중의 하나이다. '모하'은화를 티베트 은화의 범주에 둘 것인지의 여부는 여전히 뜨거운 논쟁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하'은화가 비록 네팔에서 만들어졌지만 티베트에서 유통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티베트 은화의 하나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나 티베트라는 공간적인 제한을 고려해 보았을 때,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낫다고 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은 1763년에 발행된 시만가람담까(shri mangalam tam ka)를 시작으로 해서 1791년 직쑤싱아를 거쳐 1959년 달라이라마가 인도로 망명하고 임시정부를 세우기 전까지 발행된 동전이다. 중국정부는 1958년 티베트의 자체적인 화폐 발행을 금지시켰다. 그 전까지 티베트는 수많은 형태의 동화와 은화 그리고 소량의 금화를 발행하였다. 1958년 전까지 발행된 동전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대략 다음 도표와 같은 가치를 가진 동전들이 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동전의 문양은 모두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동화	은화	금화
½ skar ("skar phyed"): 5리	1 tangka(tam ka 담까)-1.5전(1 ½ sho)(15까)-15분	20 srang ("gser tam"): 20냥
1 skar ("skar gang"): 1분	1 sho ("zho gang"): 1전	
⅓ sho(zho): 1분 2리 5	2 sho ("zho do"): 2전	
¼ sho(zho): 2분 5리	5 sho ("zho lnga"): 5전	
2 ½ skar ("skar phyed gsum" or "kha gang"): 2분 5리	1 srang ("srang gang"): 1냥	
5 skar ("skar lnga"): 5분	1 ½ srang ("srang gang zho lnga"): 1냥 5전	
7 ½ skar ("skar phyed brgyad"): 7분 5리	3 srang ("srang gsum"): 3냥	
1 sho ("zho gang"): 1전	5 srang (in limited numbers: this	

3 sho ("zho gsum"): 3전	coin was also struck in copper):	
5 sho ("zho lnga"): 5전	5냥	
	10 srang ("srang bcu"): 10냥	

〈도표 1〉 티베트에서 발행된 금화, 은화, 동화 단위

https://en.wikipedia.org/wiki/Historical_money_of_Tibet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일부 수정하였음.

대략 160~200년의 시간 동안에 만들어진 동전은 그 종류도 많고, 새겨진 문양도 다양하다. 동전의 문양을 모두 알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몇 가지 패턴을 볼 수 있다. 크게 문자와 문양이다. 문자에는 숫자도 포함된다. 숫자는 발행연도나 혹은 돈의 단위를 나타내며 아라비아 숫자가 아닌 티베트식으로 표기하였다. 예를 들어, 1을 གྲྀ, 이나 གྲྀྱ으로 표기하였으며, 서체도 동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다. 숫자와 더불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연도를 나타내는 ‘랍츄(rab byung)’이다. ‘랍츄’는 티베트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로, 중국의 갑자의 의미와 유사하다.

티베트력의 시작은 966년 혹은 1027년의 두 가지 설이 있으며 그에 따라 서기로 바꾸는 계산법도 조금 달라진다. 예를 들어, 직쑤싱아의 경우 동전 중앙에 cig gsum bzhi lnga(1345)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어서 붙여진 이름인데, 이것은 13랍츄에 45년이란 뜻이므로 이를 서기로 바꾸면 1791년이 된다. 이렇게 숫자는 동전의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외에 동전에 나타나는 문자로는 티베트 정부를 뜻하는 ‘가덴포장(dgav ldan pho brang)’이 있다. ‘가덴포장’은 흔히 단독으로 나오지 않고, 그 뒤에 ‘첼래남개(phyod las rnam rgyal)’가 붙어 ‘가덴포장첼래남개’로 완성되어 나타난다. 이 문자는 지폐를 포함한 거의 모든 화폐에서 등장한다. 굳이 해석해 본다면, ‘영원한 승리의 티베트정부’, 혹은 ‘위대한 티베트정부’ 정도가 될 것이다. 동전에 나타난 문자는 문양에 포함되어 다루어져야 하나 지면상 본론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티베트 동전의 문양은 티베트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종교적인 특징과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담고 있다. 7세기에 불교 유입 이후 티베트는 전반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전통신앙인 ‘핀(bon)’이 티베트의 주요 사상이었다. 하지만 불교가 들어오면서 사상은 물론 정치까지 변화를 일으켰다. 불교와

갈등을 일으킨 '핀'도 더 이상 과거를 고집할 수 없었다. 결국 '핀'은 생존을 위해 '규핀(bsgyur bon, 치쑹데젠 때 핀이 불교화한 것)'이라는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만 했다. 불교 이전이 '핀'의 세상이었다면 불교가 들어온 후 티베트는 모든 것이 불교 중심으로 돌아갔다. 물론 불교도 '핀'의 의식이나 신령 등을 받아 들였다. 동전에 나타난 문양은 이를 잘 반영한다.

동전의 문양은 일정한 양식을 띤다. 그렇기에 동전이 시대에 따라 여러 종류로 발행되지만 그 안에 담겨진 기본적인 문양의 패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 문양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해와 달, 그리고 산과 구름이다. 특히 해와 달은 티베트의 중요한 상징대상이다. 사원이나 티베트 가정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상징물이다.

둘째,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동물인 '사자'이다. 티베트인들에게 사자는 특별하다. 티베트의 고지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자가 왜 이들의 가장 중요한 상징 중의 하나가 되었는지 그 의미와 함께 살펴볼 것이다.

셋째, '노부'이다. '노부'문양이 동전에 나타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지만 티베트의 주요 상징물임에는 틀림없다. '노부'는 말, 코끼리 등 기타 주요 상징물과 함께 결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넷째, 티베트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자시다개'이다. '자시다개'는 여덟 개의 상징물로 각각이 상징하는 바가 다르다. 많은 동전에서 등장하는 '자시다개'에 대한 연구는 티베트화폐의 문양연구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다섯째, 티베트 동전에서 구현되는 '만다라'이다. 동전에서 나타나는 만다라는 동전 그 자체로 혹은 그 안에서 도형으로 구체화된다.

이 외에도 일시적으로 정치적인 영향 아래에서 1910년에 발행된 1가, ½가 선통보장 동화와 같은 해에 발행된 1쇼와 2쇼 은화에 용문양이 등장한다. 또 1904~1942년 사이에 사천에서 발행된 여러 가지의 루피(1루피, ½루피, ¼루피)에 광서제 얼굴이 나타난다. 하지만 선통보장의 경우 티베트 전통문양과 거리가 멀고 또 그 유통 기간이 짧았다. 루피 계열의 경우 역시 티베트 전통문양이 아닌데다가

발행기관도 티베트와는 무관하기에 두 종류의 동전을 본 연구의 범주 안에 두지 않기로 하였다.

3. 선행연구

티베트 동전은 티베트 화폐의 일부분으로 1959년 티베트 정부가 인도로 망명하면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역사적 유물이 되었다. 티베트에서 통용되지 않은 티베트 화폐에 대한 연구는 티베트의 다른 영역에 비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 이유로는 티베트 화폐 본연이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한 매력이 적거나 관심을 끌 만한 것이 없었을 것이고, 또 다른 이유는 정치적인 한계로부터 비롯하였을 것이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티베트 동전에 대한 연구는 티베트 연구의 중심에 있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티베트에 대한 주된 연구는 물질문화 보다는 정신문화인 사상이나 종교에 치중되어 있다. 이와는 달리 동전은 티베트의 정신세계를 바탕으로 한 신비주의와 반대되는 지극히 세속적인 대상이다.

동전은 티베트가 가지고 있는 신비한 정신적인 사상과 배치되는 물질을 대표하는 세속적인 대상물이다. 돈은 어디에나 필요하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경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는 마치 티베트인은 고기를 먹어야 하지만 살생을 하면 안 되는 것과 같다.

티베트처럼 정신세계를 중시하는 분위기 아래에서 물질적인 것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것은 어울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물질로 된 동전에는 티베트인의 문화가 깃들여 있고, 종교를 바탕으로 한 세계관이 내재되어 있음은 돈의 양면성과 닮아 있다. 즉 마치 동전이라는 물질을 통해서 자신들의 세계관을 설명하려고 시도하듯이 물질과 정신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설파하고 있는 듯하다.

동전의 문양에 대한 연구로는 대체적으로 사자나 해, 달, 산, '자시다개', 둥근 선 등에 대하여 간단하게 언급한 글이 있고,⁶⁾ 동전에 새겨진 티베트 문자와 티베

6) 劉杰、李曉峯、楊君、周衛榮. 「西藏雪岡銅幣的初步研究」. 『广西民族大學學報』第21卷第1期, 2015.

트럭을 서기로 표기하는 방법을 거론한 연구 정도가 있다.⁷⁾ 또 매우 드물지만 동전에 나타난 문양을 불교적 교리와 비교하여 연구한 경우가 있다.⁸⁾

동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동전의 역사와 관련해서 연도표기법과 동전의 종류 및 동전의 단위에 관한 경우가 주류를 이루며 그 내용도 간단하게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티베트 화폐에 대한 연구는 어떤 면에서는 종교 연구보다 더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화폐라는 상징성 때문에 그렇다. 화폐의 발행은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지표의 하나가 된다. 이것은 중국이 티베트를 원나라 시기부터 중국에 복속되었다고 주장하는 논거와 배치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는 동전을 판별하기 위한 수단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 과정에서 동전에 새겨진 티베트어 문자에 대한 간단한 식별연구와 더불어 동전의 종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던 것이다.⁹⁾

지금까지 티베트 동전에 대한 연구는 정치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티베트 동전이 가지는 연구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것을 대변한다. 연구자는 늘 티베트 화폐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에서야 간신히 은화에 대한 연구를 발표할 수 있었다.¹⁰⁾ 이것을 시작으로 연구자는 티베트 화폐의 전반적인 분야에 관심을 더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도 그 연장선 위에 있으며, 그 동안 은화 연구에 치중되어 있는 부분을 동화와 금화를 포함한 연구로 확장시킴으로써 티베트 동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시도해 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는 티베트 동전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꺼내려는 시도이다. 그 이야기는 정치, 종교, 역사, 민속 등을 아우른다. 동전은 물질적이며 이미 죽은 과거의 유물이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티베트인이 전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들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 동전에 나타난 문양의 의미를 다양한 각도로 해석해 보고자 한다.

7) 錢嶼, 「清代西藏銀幣的幣文」, 『中國錢幣』, 1989, 3, 26.

8) 金普軍、凌雪, 西藏銅幣上佛教紋飾研究, 宗教學研究, 2007.

9) 曹剛, 『中國西藏地方貨幣』, 四川民族出版社, 1999.

10) 이정환, 「은화로 본 티베트 문화」, 『배재대 대학교양교육연구』, 2017.

4. 동전에 나타난 문양

티베트 동전은 종류에 따라 크기와 문양이 다르다. 또 같은 종류의 동전이라도 기본적으로 수공으로 제작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특징을 보인다. 거기에다 동일한 동전이라도 제조된 조폐장에 따라 조금 다른 모양을 띠게 된다. 이것은 티베트 동전과 동전의 문양이, 또는 티베트 동전이 다른 화폐와 구분되는 큰 특징 중의 하나일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감안하고 동전에 나타난 문양을 통해 해, 달, 구름, 산, 사자, 노부, 자시다개, 만다라 등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해, 달, 구름, 산 문양

해, 달, 구름, 산 등은 일부 동전의 주요 소재이며 대체적으로 사자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 다섯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 동전의 도안을 완성한다. 해와 달은 동전에 따라 함께 나타나기도 하고 해가 두 개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림 1>의 송아처럼 두 개의 해가 나타나거나 혹은 10쌍 은화처럼 해와 달이 짝을 이루어 나타난다.



<그림 1> 1947-1950에 발행된 송아(5전) 동화, 10쌍(10냥) 은화.
<http://worldcoingallery.com/countries/Tibet.php//>
https://en.wikipedia.org/wiki/Historical_money_of_Tibet

해, 달, 구름, 산, 사자 등이 함께 나타나는 동전에는 1933~1938년, 1946년

발생한 쌍쑀(3냥), 1936~1938년, 1946년 발행한 쌍강송아(1.5냥), 쌍쑀(10냥) 은화가 있다. 동화로는 1946년 발행한 쑀쑀, 1947년에서 1953년 사이에 발행한 송아가 있다. 위의 5가지 문양은 초기에는 사자와 해가 짝을 이루어 나타나다가 후기에 이르러 이들 문양이 함께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그림 2〉 1913년에 발행된 송아(5전 은화). 〈그림 3〉 십상자제. 해와 달이 결합되어 있는 문양.
<https://www.numisbids.com/n.php?p=lot&sid=2325&lot=2012>
http://www.sohu.com/a/73196982_351361

하나의 해가 사자가 단독으로 결합된 경우도 있다. 많은 동화와 은화에서 이와 같은 유형이 발견된다. 자세한 것은 사자 문양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해와 달은 두 가지 방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장식과 종교적 의미이다. 장식은 옷이나 혹은 건물에 사용된다. 물론 장식에 종교적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용되는 곳이 다르다. 당연히 티베트에서는 해와 달이 종교적인 의미로서의 가치가 훨씬 강하다. 불교의 상징물 중에서 해와 달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해와 달은 음양을 대변하는 것이지만 티베트에서는 밀교적 성격의 성적인 결합을 통한 완성이나 깨달음을 나타내는데 활용된다. 이와 관련된 흔적은 평소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는 사원의 남녀를 상징하는 상(像)에서 발견된다. 음양의 결합은 수행을 위한 방편을 뜻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수행에 활용되기도 하였다. 때문에 일부 교파는 여전히 결혼을 허용하기도 한다. 과거 종카바가 등장하기 전에 닝마파를 위시한 티베트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위와 같은 방법이 빠른 성취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유행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이 수행방법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

제를 낳았고, 오늘날 티베트 불교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중카버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밀교적 수행을 자제하고 경전을 중심으로 한 현교의 중요성을 설교하였다. 오늘날의 게루파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다. 실제 게루파는 이론적인 경전 공부를 끝내야 밀법을 배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또 밀법의 성적 수행도 명상을 통해서 해결한다.

해와 달, 구름, 산, 사자 등이 나타나는 동전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구조가 발견된다. 티베트인들은 세상을 3개로 나누는 습관이 있다. 즉 세상을 하늘, 허공, 땅(지하를 포함)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 영적인 존재인 '하'ha, '젠'can, '루'lu와 연결시켜 이해한 것이다. 이를 동전에 대입해서 살펴보면, 하늘은 해와 달로, 허공은 구름, 땅은 산(혹은 해와 달, 산과 구름, 사자)으로 비교해 볼 수 있겠다. 이것은 티베트인의 불교 이전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예이다. 각 영역에는 해당 신령이 존재하는데, 신령은 숭배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수행의 대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행위가 순례이다. 티베트에서의 순례 방식은 독특하다. 순례의 대상은 신이나 부처 같은 존재이겠지만 직접적인 대상물은 뽀달라, 죠강, 강디스, 남초 등 매우 구체적이다. 과거 '핀'의 신령이었던 히말라야의 12여신, 탕구라와 마친신 등이 전형적인 대상이다. 티베트인은 순례를 통해 신과 소통하고 자신을 확인한다. 전통적인 입장에서 보면 산신은 '젠'에 해당하는 신령이다.¹¹⁾ 3세계관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신령이다. 이 신령은 인간의 삶과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존재이다. 살아 있을 때에는 인간의 복과 화를 관장하고, 죽음 뒤에서는 영혼을 인도하는 존재로 여겨진다. 때문에 티베트인에게 유독 산이 중요한지도 모른다. 티베트의 산은 설산이다. 설산은 곧 티베트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동전에 나타난 산은 티베트를 상징함과 동시에 불교의 수미산을 나타낸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순례의 저변에는 티베트인의 만물에 대한 인식이 깔려 있다. 티베트인은 모든 만물에 영적인 것이 존재하며, 그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상대를 자신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불교의 '연기법'과 관련되어 있다. 연기

11) 여기서 '젠'은 공간적으로 중간에 해당하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신령은 산신과 같은 존재이다. 이정환, 「티베트 토번왕조 시대의 토속종교 핀 세력 연구」, 『현대중국학회』 제18집 2호 170쪽.

는 불교의 기본 원리이다. 티베트의 육도 윤회도를 보면, 염라대왕이 물고 있는 4개의 원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바깥쪽에는 무명, 행, 식, 명색, 육입,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의 12연기가 그려져 있고, 그 안쪽으로 천, 이수라, 인간, 축생, 아귀, 지옥의 육도가, 다시 그 안쪽으로 생, 사, 중음이, 가장 안쪽에는 돼지, 비둘기, 백인 삼독이 그려져 있다. 삼독은 윤회의 근본원인이 된다. 12연기는 윤회의 원리를 설명한 것이다. 삼독의 어리석음에서 무명이 생겨난 것이다. 해탈은 이것이 일어나지 않게 된 상태를 가리킨다. 티베트인은 이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순례를 한다.

티베트인에게 순례는 일상화되어 있다. 조강을 들고, 뽕달라를 들고, 강디스(카일라스)를 들고, 남초를 도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순례를 하는 동안 앞에서 거론한 3세계관은 하나의 세계로 연결되기도 한다. 티베트인은 이러한 행위를 통해 신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고, 그것을 통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2) 사자

동전의 중앙에 나타난 사자는 동전의 완성을 나타낸다. 동전에서 사자는 단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해와 혹은 해, 달, 구름, 산 등과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동전에 나타난 사자의 모습은 그 자세에 따라 앞을 향해 머리를 들어 올린 형태와 뒤를 돌아 머리를 쳐들어 올린 형태로 나누어진다. 입 모양도 크게 벌린 것과 작게 벌린 것 등으로 나누어져 작은 공간에서 다양한 모양을 추구하였다.

사자는 모든 동물을 대표한다. 때문에 사자의 모습이 근엄하거나 용맹스러워야 한다. 하지만 티베트 동전에 나타나는 사자의 모습은 희극적이다. 특히 동전에 따라 사자의 머리 모양이나 위치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더 재미있다. 가장 근엄한 사자를 티베트인들은 익살스럽게 표현했다. 아마 사자가 공포의 대상, 경계해야 할 대상이 아닌 친숙함의 대상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사자가 티베트 동전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09년 발행한 동화 카강(kha gang), 7꺄까(skar phyed brgyad), 5까(skar), 은화 1쌍(srang)이며, 그 후 금화에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당초 네팔이 티베트를 위해 1631년경에 만든 '담까'(tam ka)에서 그 문양을 찾아보았으나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 이것은 티베트가 동전을 만들 때 네팔의 것을 모방해서 만들었지만 그 문양에서 네팔과 다른 티베트만의 독자적인 문양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티베트 동전에 나타난 다양한 문양을 네팔 모하은화와 비교해 보면 그 단절성을 발견할 수 있다.

사자가 나타나는 동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쌍강고모(1쌍)-1냥 은화

송아고모(5쇼)-5전 은화

쌍쑤고모(3쌍)-3냥 은화

쌍강송아(꺄쌍)-1냥 5전 은화

쑤고(10쌍)-10냥 은화

까체개-7분 5리 동화(7꺄skar)

강아(5까)-5분 동화. 까츄과 까첸으로 나누어진다.

카강(kha gang)-꺄전 동화

쇼강(1쇼)-1전 동화

신쇼강-1전 동화

까체쑤-2분 5리 동화(2꺄skar). 1918~1920년 사이에 발행되었으며 돈의 단위는 앞의 '카강'과 같지만 동전의 외형과 나타난 문양이 다르다. '카강'은 1909년 발행되었으며 그 외형이 둥글지만 까체쑤는 1918년에서 1920년 사이에 발행된 4개의 꽃잎 모양을 하고 있다. 또 '까강'은 앞면의 사자와 뒷면의 중앙을 둘러싸고 있는 모양이 둥글지만, 까체쑤는 사자를 둘러싼 모양이 꽃잎 모양을 띤다.



〈그림 4〉까체쑤.

<https://www.numisbids.com/n.php?p=lot&sid=2325&lot=2030>

한마디로 까체쑤 동전은 모양이 독특하다. 4개의 꽃잎 모양을 한 외형은 마치 네 잎 클로버를 연상하게 한다. 정면 중앙에는 사자가 새겨져 있고, 사자를 둘러싸고 역시 4개의 꽃잎 모양이 형성되어 있다. 그 둘레에는 발행연도가 표기되어 있다. 뒷면은 중앙에 노부 모양이 있고, 그 외곽에 돈의 단위를 나타내는 까체쑤 (skar phyed gsum)이 새겨져 있다.

- 쇼쑤-3전 동화
- 송아-5전 동화
- 쎄장고모-20냥 금화



〈그림 5〉 동전에 나타난 사자 모습. 대부분의 동전에 나타난 사자의 모습은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외에 정식으로 발행되지 않은 50냥 은화 업쥬고모, 20냥 은화 닝아고모, 5냥 동화(위의 5쎄) 등이 있다.

이들 동전에 나타난 사자의 형태는 머리를 쳐들거나 뒤로 돌리거나 혹은 엎드린 자세 등을 하고 있으며, 동전의 정면 중앙에 배치되어 있다. 여기서 사자는 동전의 중심이며, 티베트를 상징한다. 이는 설산이 티베트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과 같다. 티베트에서 사자는 말과 함께 중요한 상징물 중의 하나이다. 말은 이승과 저승을 연결해 주며 소원을 전달해주는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사자는 본래 가지고 있는 위엄성이 불교와 결합하여 절대성, 부처, 승리, 보호 등의 이미지를 가진다.

티베트에서 사자가 상징물로 사용된 관련 기록은 송젠캄보가 티베트를 통일한 후 토변을 세우고 군사행정구역을 나누는 과정에서 등장한다. 당시 송젠캄보는 보다 체계적인 국가를 세우기 위해 티베트의 주요 지역을 5개로 나누어 다스렸는데, 그 중 우루(dbu ru)는 붉은색 사자기를 군기로 사용하였고, 예루(g'yas ru)는 하얀 사자기를 사용하였다.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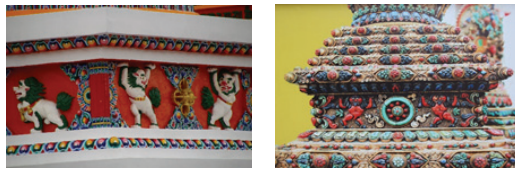
당시 사자가 군의 기로 사용된 것은 사자가 티베트의 전통적인 동물이 아니지만 매우 보편적인 대상이었음을 보여준다. 시대적으로 같은 시기에 지어진 죠캉 사원에서 발견되는 사자의 모습은 이를 반증한다. 사원에서 사자는 일반적으로 중요한 대전 입구 문 위에 장식으로 등장하는데, 사자의 위엄이나 용맹함이 불교와 결합하여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위엄성은 부처상이나 보살상의 좌대에 나타나기도 하고, 높은 고승이 앉은 곳의 단에도 장식된다. 사자는 또 부처나 보살의 명호로 등장하여 절대자의 모습을 강조한다. 석가모니와 사자가 결합해서 나타난 싸까생게(sakya seng ge)가 그 좋은 예이다. 이렇게 사자는 관음의 사자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삼예사원을 건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파드마삼바바의 화신으로도 등장한다.¹³⁾

사자는 신의 대리자이며, 동시에 신의 화신으로서 도안의 완성자 역할을 한다. 동시에 중앙에 배치된 사자의 모습은 만다라의 상징성과 비슷한 구조를 가진다. 만다라의 경우 중앙에 부처나 보살 혹은 상징적인 문자가 등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12) 恰白·次旦平措, 諾章·吳堅, 平措次仁 著, 陳慶英, 格桑益西, 何宗英, 許德存 譯, 『西藏通史 (bod kyi lo rgyus rags rim g'yu yi phreng ba)』, 西藏社會科學院, 2004. 57-58.

13) 이정환, 「삼예사원의 참예 대한 고찰」, 『역사민속학』 7, 432쪽.

구조인데, 사자가 이를 대신한 것이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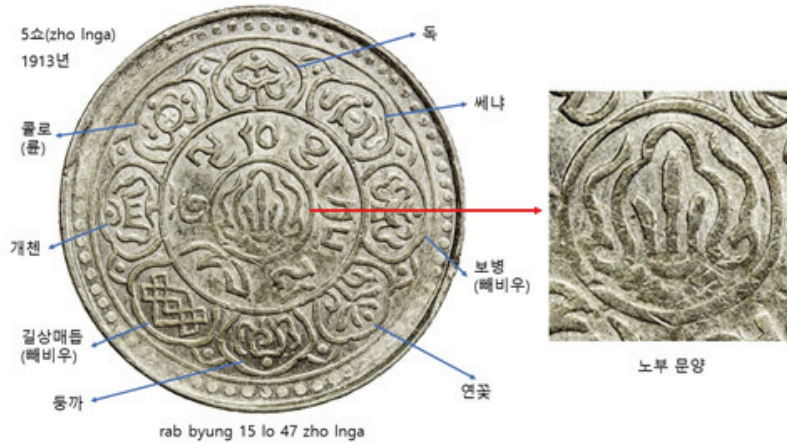
〈그림 6〉 탑을 받치고 있는 사자. 연구자 촬영

3) 노부

동전에 등장하는 노부(nor bu)는 불꽃 모양을 하고 있다. 이 문양이 동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고, 주로 동전의 뒷면 중앙에 나타난다. 연구자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노부는 은화 송아고모(1913년 발행), 쌍강고모(1909~1919년 발행), 탐쌍은화(1910년 발행), 담까은화(1886년, 1909년 발행)와 동화 체개(까체, 1909년 발행), 깡아(1909년 발행), 까강과 까체쑤(1909, 1918~1920년 발행)에서 나타난다. 여기서 체개는 7 $\frac{1}{2}$ 까(7분 5리) 동화로 1918년에 발행한 외형이 8개 꽃잎 모양의 체개(까체)와 구별된다. 또 카강은 2 $\frac{1}{2}$ 까(2분 5리)를 가리키는데, 발행 연도에 따라 둥근 동전 형태와 4개의 꽃잎 형태로 나누어지며 동전 뒷면 중앙에 모두 노부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 다만 깡아의 경우 1909년과 1918~1922년에 발행된 것과 구분된다. 앞에 발행된 5분 동화 깡아를 까첸이라고 하는 반면에 뒤에 발행된 깡아를 까츄으로 부르며 구분한다. 뒤에 발행된 까츄에는 노부무늬가 나타나지 않는다.

동전에 나타난 노부의 형태는 대략 다음과 같다.

14) '룽다(rlung rta)'에서 말이 중앙에 있고 사자가 그 주변에 배치된 것과 비교된다. '룽다'에는 5가지 동물, 즉 말, 대봉, 용, 사자, 호랑이가 등장한다. 여기서 5가지 동물은 5방위를 나타낸다. 즉 중앙에 말을 둘러싸고 사방에 4개의 동물이 배치된 형태를 띤다. 이들 동물은 티베트 전통신앙인 '윈'의 신령들이다. '윈'에서 말은 영혼을, 대봉은 생명력, 용은 번영, 사자는 명운, 호랑이는 신체를 나타낸다. 이것은 다시 바람, 불, 물, 흙, 나무로 나타나는데, 바람의 기운에 의해 이 4가지는 만물을 형성하는 요소가 된다. (이정환, 『은화로 본 티베트』, 『배재대 대학교양교육연구』, 2017. 12. 27쪽)



〈그림 7〉 5쇼(송아고모)의 노부 문양.

노부는 원래 보물이란 뜻으로, 린보체와 그 의미가 유사하다. 티베트에서 보물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로는 rin chen, rin po che, nor bu가 있다. 이와 관련되어 사용된 구체적인 보석은 금, 은, 산호, 진주, 유리, 금강석, 보석 등이 있다. 이들은 공물, 장식품, 기물 등으로 나타나는데, 그림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그림 8〉 동전에 묘사된 다양한 노부(왼쪽부터 카강, 까체쑤, 1/4쇼, 까체개, 담까, 5쇼)

노부와 린보체는 결합되어 신주보(神珠寶, 노부린보체 nor bu rin po che)를 나타내기도 한다. 신주보는 칠정보(七政寶)의 하나이다.¹⁵⁾ 일반적으로 린보체와

15) 칠정보는 우주의 왕인 전륜왕이자 비슈누로 알려진 신을 상징하는 7가지 보물을 뜻한다. 칠정보는 티베트어로 rgyal srid rin chen sna bdun라고 하며 금륜보(vkhor lo rin po che), 신주보(nor bu rin po che), 옥녀보(btsun mo rin po che), 신보(blon po rin po che), 백상보(glang po rin po che), 감마보(rta mchog rin po che), 장군보(dmag dpon rin po che)를 가리킨다.

마찬가지로 인명이나 물건과 결합하여 존경의 표시를 나타낸다.

티베트에서 수미산으로 알려진 카일라스, 즉 강디스산은 강린보체라고 하며, 달라이라마 같은 고승에게도 불교의 절대자를 뜻하는 개왕과 결합하여 개왕린보체라고 부른다. 또 린보체와 노부가 결합하여 노부린보체를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노부는 린첸(rin chen)이나 린보체(rin po che)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형태나 혹은 여러 개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며, 칠정보와 같이 일정한 동물이나 다른 상징물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코끼리나 말 그림은 그 동물의 등에 노부의 형태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룽다의 경우도 중앙의 말 안장위에 노부가 함께 나타난다. 이런 형태의 노부를 '이쨌노부(yid bzin nor bu)'라고 한다. '이쨌노부'는 신계와 용계(루의 세계, 우리의 용과 다름)에 머물며 용의 손에 나타나는 것으로 표시된다. '이쨌노부'는 전륜왕의 7가지 기물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노부에는 불꽃 모양의 화염이 함께 나타난다. 기본적으로 <그림 7>, <그림 8>에 나타난 노부의 형태와 일치한다.

4) 자시다개

자시다개(bkra shis rtags brgyad) 문양은 티베트의 대표적인 상징물이다. 티베트 어느 곳을 가도 자시다개는 쉽게 발견된다. 그만큼 티베트에서는 매우 친숙한 문양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시다개는 8가지의 상징물로 우산(gdugs), 황금물고기(gser nya), 보병(gter gyi bum pa), 연꽃(pad ma), 소라(dung g'ys vkhyil), 길상매듭(dpal bevu), 승리당(rgyal mtshan), 룬(vkhor lo)을 가리킨다. 자시다개가 티베트 동전에 처음 등장한 것은 현재 전해지는 동전을 살펴보았을 때, 1791년에 만들어진 직썩싱이가 최초이다. 동전 뒷면에 중심을 둘러싼 8개의 둥근 모양 안에 자시다개가 함축되어 새겨져 있다.



〈그림9〉 직쑤싱야. 동전의 뒤에만 나타난다.
<http://ykleungn.tripod.com/tibcoin2.htm>



〈그림 10〉 1쇼(쇼강)과 3쇼(쇼쑤).
<https://www.numisbids.com/n.php?p=lot&sid=2325&lot=2041>
https://en.wikipedia.org/wiki/File:Tibetan_3_sho_16-20.jpg

자시다개 문양은 동화보다는 은화에 많이 사용되었다. 동화에 나타난 자시다개는 두 개의 동전에서 발견되었다. 첫 번째는 1932년에서 1938년 사이에 과거의 쇼강과는 다른 새롭게 발행한 쇼강의 앞면과 뒷면에서 각각 길상매듭과 연꽃무늬가 등장한다. 두 번째는 1946년에 발행한 쇼쑤이다. 이 동전의 앞뒤로 각각 4개의 자시다개가 나타난다. 이 외에도 〈그림 15〉의 5까(깡아) 동화에도 일부 연꽃 문양이 보인다. 〈그림 11〉은 3쌍(썩쑤) 은화로 자시다개가 잘 나타나 있다. 이 은화는 1933~1938년, 1946년에 발행되었다.



〈그림 11〉 3쌍(srang gsum) 은화. 자시다가개가 동전의 앞뒤에 나타난다.

자시다가개는 8개의 꽃잎 모양 안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8은 여덟 방위로써 4방에 4를 더해 완전함을 표시한다. 또 8은 팔정도와 연결되는데, 이 팔정도는 자시다가개의 하나인 료를 이루는 살과 관련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거의 모든 동전에 나타나는 ‘가덴포장첼래남개’도 8글자이며, 완전한 승리의 뜻을 가진 이 글자와 부합된다. 1850년에서 1928년까지 발행한 소위 가덴포장이라고 불리는 은화에 자시다가개가 잘 나타나 있다.



〈그림 12〉 담까 즉 1½쇼(1전 5분)의 가치를 지닌 가덴포장 은화.
<http://jd.cang.com/670112.html>

(1) 독(우산)

원래 우산의 주요 기능은 비를 피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더 많이 사용되었다. 특히 자시다가개가 유래한 인도같이 태양이 뜨거운 지역에서는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여기서 비나 태양은 고통이다. 때문에 ‘독’

은 고통, 욕망, 장애, 질병, 악한 힘으로부터 벗어남을 상징한다. 즉 그늘진 곳이 고통과 장애로부터의 벗어남을 뜻한다.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빛을 피해 그늘에 있게 되면 그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둑'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층은 많지 않다. '둑'은 왕족이나 귀족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던 것이 종교로 전이 되어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신분의 높이에 따라 '둑'의 숫자도 달라진다. 왕의 경우 13개의 '둑'을 사용하였다. 13이라는 숫자는 초기 인도불교에서 전륜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티베트에서도 13 숫자는 우리의 서낭당과 비슷한 '랍째'의 숫자에서 발견된다. 티베트에서 '둑'의 사용은 덕망 있는 라마에게만 허용된다. 사원의 '주구'(sprul sku, 일반적으로 활불이라고 불리 우는 화신을 가리킴)라고 불리는 이들이 '둑'을 사용한다.



(그림 13) 둑. 5쇼, 3쌍, 담까, 3쇼(동화), 직쑤싱아

'둑'의 크기나 형태는 신분에 따라 달라지며, 덕망 있는 라마의 자리에는 황색이나 홍색의 거대한 실크로 된 '둑'이 사용된다. 백색이나 황색의 산은 지고 무상한 종교적 권위를 나타낸다. 연구자는 백색의 '둑'이 실제로 사용되는 모습은 본 적이 없고, 대부분이 황색의 '둑'이었다. '둑'의 위쪽 둥근 부분은 지혜를 나타내며, '둑'에 걸쳐 있는 실크는 여러 가지 자비나 방편을 상징한다.

(2) 싸냐(황금물고기)

중국에서 물고기는 풍요로움을 상징한다. 춘절이 되면, 물고기를 먹으며 풍요로운 한해를 기원하는 것도 이와 같다. 티베트에서 물고기는 성스러움을 나타낸다. 때문에 티베트인은 물고기를 잡아먹지 않는다. 어느 강이든 물고기가 많다. 언제부터 티베트인이 물고기를 먹지 않았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단지

불교가 들어온 후가 아닐까 추측해볼 뿐이다. 만약 그 이유가 살생을 금하는 것 때문이라면 육지의 고기는 왜 먹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어쩌면 물고기를 잡을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티베트인은 야크를 키우기는 하지만 직접 도축을 하지 않는다. 인근의 이슬람인들이 대신한다. 직접 명을 끊지 않음으로써 불교에서 말하는 불살생을 실천하려 한 것이다. 그렇다면 물고기도 다른 이의 손을 빌리면 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티베트인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물고기를 잡거나 먹지 않는다. 물고기는 '루'에 세계에 속하는 동물이다. '루'는 질병을 일으키는 존재이다. 대부분의 질병과 불행은 '루'에 의한 것으로 인식한다. 물론 '루'가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티베트인은 부정적인 '루'를 피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싶다.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거나 혹은 죄를 지어 죽은 사람은 전통 장례인 조장을 따르지 않고 수장을 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자시다개'에서 쉼나(황금물고기)는 두 마리의 형태로 나타난다. 두 마리의 물고기는 갠지스강과 야무나하를 나타낸다.¹⁶⁾ 일반적인 물고기가 아닌 신령스러운 물고기다. 이러한 물고기는 사람의 영혼을 신에게 이끈 다고 알려져 있다. 동전에 나타난 물고기도 두 마리다. <그림 11>을 참조하기 바란다.

불교에서 물고기는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자유의 경지를 상징한다. 인도의 성인인 디로바(di lo pa)의 기물이 물고기인 이유도 윤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즉 '쉼나'인 황금물고기에는 윤회의 사슬에 걸리지 않는 자유로운 종교적인 철학과 부나 명예의 세속적인 욕망이 함께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3) 데기품바(보병)

'데기품바'는 보물이 담겨져 있는 혹은 보물이 나오는 보병으로 티베트에서 재신인 보장신(寶藏神), 다문천왕(多聞天王), 증록천모(增祿天母, nor rgyun ma)

16) [英] 로버트·비爾 著, 向紅筋 譯. (2007). 「藏傳佛教象徴符号与器物圖解」. 中國藏學出版社. 5-6쪽.

등과 관련되어 나타난다. 티베트인은 보병 위에 증록천모의 화신이 있어서 병에서 보물이 끊임없이 솟아온다고 믿는다. 때문에 티베트 가정에서는 이 상징물을 많이 사용한다. 보물이 끝없이 나오는 보병이니 얼마나 소중하겠는가? 인간에게는 아무리 많은 재화라도 넘치는 법이 없다. 늘 부족함을 느낀다. 끝없는 욕망 앞에서는 아무리 많은 재화도 부족하기 마련이다. 그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보병이다. 하지만 이 보병은 물질적인 재화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종교적인 무한한 지혜도 나타낸다. 그렇기에 사원에도 자시다개가 그려지게 된 것이다.¹⁷⁾

동전에 나타난 보병으로는 1935-1938년, 1946년에 새롭게 발행한 쌍썩고모와 1936년에 발행한 쌍강송아가 대표적이다. 이 두 개의 은화는 문양이 비슷하다.



〈그림 14〉 쌍썩고모(1936년) 와 쌍강송아(1936년)

<https://www.numisbids.com/n.php?p=lot&sid=2325&lot=2045>

<https://www.numisbids.com/n.php?p=lot&sid=2325&lot=2047>

동전에서 ‘데기품바’는 〈그림 14〉처럼 중앙에 단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림 7〉, 〈그림 9〉처럼 자시다개의 하나로 나타나기도 한다.

(4) 연꽃

연꽃은 티베트어로 ‘빠마’라고 하며, 산스크리트어로는 ‘파드마’라고 한다. 깨끗하지 않은 곳에서 나오는 연꽃은 순결한 고귀함과 깨달음을 상징한다. 티베트에서 연꽃이 중요시 되는 이유는 고통스러운 세속 속에서 피어난 송고한 연꽃처럼 깨달음에 대한 갈구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티베트의 수많은 화가들은 연꽃을 벽

17) 이정환, 「은화로 본 티베트 문화」, 『배재대 대학교양교육연구』, 2017. 31쪽.

화에 옮겨 놓았으며, 탕카에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연꽃이었다. 동전에 새겨진 연꽃은 자시다개의 하나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동전의 곳곳에서 여러 가지의 형태를 한 연꽃무늬가 발견된다. 그만큼 연꽃무늬를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다.

연꽃이 동전에 등장한 것은 만가람 담까부터이다. 만가람 담까은화는 1763년에 발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앙의 연꽃 모양이 1914년에 발행한 5가(skar) 동화와 비슷하다. 또 1840년에서 1930년까지 이어진 담까은화의 룬과 닮았다.



〈그림 15〉 왼쪽부터 순서대로 만가람 담까, 5가 동화, 담까은화

무릇 연꽃은 부처나 보살의 보좌에 사용되어 절대자나 성스러움을 나타낸다. 티베트 사원에서 고승이 앉은 자리에는 연꽃이 새겨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꽃은 인도의 주요 상징물이었다. 인도 초기 베다교의 창조신인 범천이 황금 연꽃에서 나왔으며 티베트에 불교를 전파하고 낭마파의 조사가 된 파드마삼바바도 연꽃에서 태어났다.¹⁸⁾ 이러한 사실에서 연꽃은 종교적인 절대성, 숭고와 깨달음을 나타내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동전에서 연꽃무늬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때로는 완전한 연꽃으로, 때로는 아주 함축적인 모습으로 등장한다. 한편으로는 연꽃을 신성한 자궁이나 음도陰道에 비유하기도 한다. 연꽃은 산스크리트어의 '陰道'를 가리키는 단어와 동일하고, 금강은 남성의 '음경陰莖' 단어와 동일하다. 금강과 연꽃의 결합은 색과 공 혹은 방편과 지혜의 결합을 상징한다. 또한 이러한 상징은 기가 체내에서 주맥을 따라 상승

18) 파드마삼바바는 시와초와 함께 티베트 최초 사원인 삼예사원의 건립에 공헌하였을 뿐만 아니라 '핀'과의 대결을 통해 '핀'을 불교에 흡수하고 '핀'이 불교화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또 그는 중음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며 '티베트 사자의 서'를 남기기도 하였다.

하여 차크라를 형성하는 것에 비유된다.¹⁹⁾ 이는 탄트라 의 음양의 결합과 동일하다.

(5) 둥까(하얀 소리껍질)

‘둥까(dung dkar)’는 사원에서 쉽게 발견되는 상징물이다. ‘둥까’는 사원에서 거의 매일 사용되는 악기 중의 하나이며, 민간의 종교의식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악기이다. 중국 칭하이(青海) 황난티베트자치주(黃南藏族自治州) 럽푹의 민속의례인 ‘6월회’와 ‘우투’에서도 이 악기는 중요하다. 다만 이 때 둥까의 소리는 의식의 시작을 알리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사람들에게 의식을 알려 참여를 독려하고, 다른 하나는 신에게 고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 악기가 언제 사용되었는지는 더 고찰해 보아야 알겠지만 과거 전쟁 때에 사용된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티베트에서 사용하는 ‘둥까’는 ‘둥예키(dung d'yas vkhyil)’ 혹은 ‘둥까예키(dung dkar d'yas vkhyil)’라고 하는데, 소리껍질 방향이 오른쪽으로 감겨 있는 것을 가리킨다. 티베트인은 왼쪽방향으로 감겨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것은 순례를 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티베트인은 숭배의 대상을 돌 때는 오른쪽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왼쪽으로 도는 이들은 ‘핀’교도들이다. 원래 전쟁의 기물이었던 둥까는 불교에 흡수되면서 부처의 말씀, 즉 불법을 전해주는 의미로 변형되었음이 부처나 보살 등과 함께 그려진 그림에서 발견된다.

초기 힌두교에서는 소리껍질을 생김새에 따라 양성(purusha)과 음성(shankhini)으로 나누었으며 4개의 카스트에도 적용되었다. 하얀 소리는 제사장인 브라만을, 홍색 소리는 무사인 크샤트리아를, 황색 소리는 상인인 바이샤를, 회색 소리는 노예인 수드라를 각각 나타낸다.²⁰⁾

(6) 빼비우(길상매듭)

‘빼비우’는 산스크리트어로 수리밧사(shrivatsa)라고 하는데, 락슈미

19) [英]로버트·비爾 著, 向紅筋 譯. (2007). 『藏傳佛教象征符号与器物圖解』. 中國藏學出版社. 8-9쪽.

20) 상동. 12쪽.

(Lakshmi)을 상징한다. 락슈미는 티베트에서는 ‘빠단하마(dpal ldan lha ma)’라고 하며, 게루파의 주요 호법신의 하나이며, 초강의 주요 호법신이다. 천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 락슈미는 티베트에서는 가장 무서운 형상으로 나타난다. 락슈미는 비슈누의 아내였는데, 바람이 나는 바람에 저주를 받아 끔찍한 모습이 되었다. 현재 그녀는 정절과 계율을 지키지 않는 자를 처벌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그려진다.

수리밧시는 비슈누의 가슴에 장식되어 락슈미에 대한 변하지 않는 마음을 나타낸다. 길상을 나타내는 이 문양은 또 다른 이름인 수리밧살크사나(srivatsalksana)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수리밧살크사나는 불교의 긴 형상과 같으며, 티베트 전통 신앙인 썬(bon)의 상징기호와도 비슷하다. 긴은 또 가키(dgav akhyil)라고 불리는 티베트의 전통무늬와 비슷하다.²¹⁾



〈그림 16〉 5쇼(zho lnga) 은화의 일부와 3쌍(srang gsum) 은화.

‘빠비우’는 자시다개의 하나로 〈그림 16〉 5쇼처럼 동전에 자시다개의 하나로 나타나며, 3쌍 은화처럼 드물지만 동전의 앞뒤로 길상매듭이 나타나기도 한다.

(7) 개첸(승리당)

티베트어로 ‘개첸’이라고 불리는 승리당은 원래 전쟁 중에 사용되었던 기(旗)였다. 승리당은 원래 죽음과 파괴의 신인 시바(shiva)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삼지창 모양을 한 ‘개첸’의 윗부분은 시바가 관장하는 하늘, 땅, 지하세계를 나타낸다. 3개의 세상은 또 육계(vdod khams), 색계(gzugs khams), 무색계(gzugs med

21) 상동. 12-13쪽.

khams) 등 삼계를 지칭하기도 한다. 삼계에서 최고의 신으로 불리는 시바는 범천과 비슈누와 함께 브라만교와 힌두교의 3대 주신으로 불린다. 이러한 힌두교의 신들이 불교시기에 들어서면서 불교에 흡수되고, '개첸'은 부처가 4가지 마(四魔)²²⁾의 유혹을 극복하고 깨달음의 경지를 나타내는 상징물이 되었다.



(그림 17) 3쌍(srang gsum) 은화에 나타난 개첸. 동전에서 개첸의 모습은 독과 구분이 명확하게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8) 룬

룬이 동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담까은화이다. 1763년에 발행된 것으로 알려진 이 은화의 중앙에는 작은 바퀴 축 모양의 문양이 나타나 있다. 이 문양은 그 뒤에 발행된 담까은화로 이어진다.

룬은 티베트어로 '콜로(akhor lo)'라고 하며, 사원 입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징물이다. 일반적으로 룬은 두 마리의 사슴 사이에 배치되는데, 이것은 석가모니가 녹야원에서 처음으로 법을 설한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석가모니가 처음 설법한 것을 초전법룬이라고 한다. 룬은 '구르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석가모니의 설법에 대해 '룬을 굴렀다'라고 표현한 것이다.

룬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는 부처의 설법에 비유된다. 앞에서 언급한 초전법룬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는 수레바퀴를 나타낸다. 셋째는 사람에 내재해 있는 에너지의 움직임에 나타낸다. 넷째는 무기이다. 룬이 장애를 없애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과거 룬이 전쟁에서 사용되었던 무기의 기능을 나타낸 것이다.

22) 四魔는 陰魔, 障魔, 死魔, 魔子(慾神)을 가리키며, '개첸'은 부처가 사마와의 싸움에서 승리했음을 나타낸다. '개첸'의 형태는 사원의 정상부분에서 볼 수 있다.

즉 강력한 무기인 룬은 장애를 파괴하고 몸의 에너지를 굴러 각성케 한다. 그 에너지는 인체내에 차크라의 형상으로 나타나며, 그 모습이 룬과 닮아 있다. 한편 룬의 모습은 그 형상에서 불교의 연기법을 떠올리게 한다. 무명에서 시작해서 노사로 끝나는 연기법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 마치 수레의 바퀴가 굴러가는 것과 같다.



〈그림 18〉 1953년에 발행된 탕가까보싸바로 알려진 은화(위쪽)와 1담까(1zho) 은화(아래쪽). 아래의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은 각각 1909년과 1929~1930년에 발행된 담가은화이다. 중앙에 태극무늬와 삼태극무늬가 보인다. 이 태극무늬는 태양에 비유되기도 한다. 아래 세 번째 그림은 1763년에 발행한 담가은화로 가운데에 축 모양의 무늬가 보인다.

동전의 중심이 음양의 태극모양을 하고 있고, 그 둘레로 8개의 바퀴살 모양이 있다. 이 8개를 팔정도에 비유하기도 한다. 가끔씩 중앙의 태극모양이 삼태극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삼태극을 태양이나 불교의 삼독에 비유하기도 한다. 어쨌든 이 바퀴살을 둘러싸고 8개의 점이 있고, 그것을 둘러싸고 다시 8개의 무늬 안에 8개의 글자가 새겨져 있다. 또 그 사이로 8개의 문양이 배치되어 있다. 마치

8이 맞물려 돌아가는 바퀴처럼 반복되어 나타난다.

동전에 나타난 룬의 모양은 동전의 전체적인 도안과 어울려 마치 하나의 만다라를 형상화한 것처럼 보인다. 즉 동전이 작은 만다라인 셈이다. 티베트인들은 동전을 통해 자신들의 세계를 표현한 것이다.

자시다개에는 고대 인도의 베다 시기부터 형성된 인도의 사상이 담겨 있으며, 이러한 사상은 불교에 흡수되어 불교화하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불교화란 베다 시기의 주요 신인 시바, 범천, 비슈누는 물론 그들이 사용하던 상징물이 불교에 흡수되었음을 말한다. 이는 일부 상징물의 의미변화를 나타낸다. 원래 전쟁 때에 사용되었던 '소리껍질'이나 '룬'과 '승리당'은 각각 '알립', '무기', '군기'를 뜻하는 것이었으나, 불교에 의해 부처의 '말씀', '법륜', '미혹에 대한 극복' 등으로 묘사되어 나타난다. 이렇듯 자시다개는 불교적 교리를 잘 반영하고 있는 상징물이다.

5) 만다라 문양

티베트인은 세상을 만다라로 이해한 것 같다. 티베트에서 만다라의 모습은 도처에서 발견된다. 그들은 세상에 만다라를 구현하려고 한 듯하다. 가장 세속적이면서 일상의 곳곳에서 쓰이는 동전에 만다라 형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렇기에 조금도 이상하지 않아 보인다.

만다라는 일종의 단(壇)을 본뜬 것으로 형태에 따라 원형, 방형, 삼각형, 우물정자형 등의 모양을 가진다. 흔히 중앙에는 본존불이 위치해 있고, 그 주위는 외각의 의미를 띠며 보살이나 호법이 자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배치이다.

만다라가 세상에 처음 알려진 것은 4세기로 보이며, 6~7세기에 이르러 여러 형태의 만다라가 나타나다가 11~12세기경에 지금과 같은 만다라의 모습이 완성되었다. 이 때 만들어진 기본적인 구도는 바깥은 원형이고, 안쪽은 방형의 형태를 띤다. 그 중앙에는 '卍'자 형이 있고, 다시 그 안에 원형의 도안이 등장한다. 중심의 원형 안에는 본존불이나 그에 상응하는 법기(상징물) 혹은 본존의 명호가 새겨진

다. 동전에서 나타나는 만다라의 형태는 대부분이 이와 같다.

‘표’자 형 안에 본존이 위치해 있는 곳은 본존의 공간이며, 동시에 우주를 나타낸다. 이것은 다시 그 주위에 4개의 신전과 관련된 상징물을 넣어 완성된다. 동전에서는 사자나 노부, 태극무늬나 보병 등이 대신한다.

티베트에서 만다라의 모습은 공간의 구성 자체에서도 발견된다. 중심 사원인 조강이 그렇고, 뽀달라가 그렇다. 방형으로 된 조강 안에 본존불이 있고, 조강 외곽으로 파꼴이 형성되어 안과 밖의 순례 길을 만들어 만다라 형상을 완성한다. 이것은 뽀달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홍산의 뽀달라는 관음이 거주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 위에 관음이 거주하는 집을 건설한 것이 뽀달라이다. 뽀달라는 방형이며, 그 외곽은 순례의 길을 통해 원으로 완성시킨다. 뽀달라 안에는 본존불이 있다. 본존불의 대상은 상으로도 나타나지만 관음의 화신인 달라이라마에 의해서도 실현된다.

실제 역사적으로 최초의 사원으로 알려진 삼예사원은 전형적인 만다라 형상을 띤다. 티베트인은 불교의 세계를 사원을 통해 나타내려고 하였다. 동전도 마찬가지이다. 티베트인은 동전에 만다라의 세계를 표현하려고 하였다.

만다라는 대상에 따라 다르게 사용된다. 수행자에게는 수행을 위한 도구로, 일반 신도에게는 숭배의 대상으로, 종교 의식에서는 밀교의식의 주요 법기로 사용된다.²³⁾ 티베트에서 만다라는 때로는 사원에서, 때로는 도시 전체에서, 때로는 수행자의 마음속에서 실현된다. 동전에 나타난 만다라 형상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이다.

첫째는 중앙의 방형에, 그 외곽은 원형의 형태를 한 것이다.

둘째는 중앙의 원형에 그 주위로 8개의 꽃잎 모양으로 하고 있고, 그 외곽은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중앙에는 전통적인 만다라에서는 본존불이나 법기나 상징물이 들어가나 동전에는 보물을 뜻하는 ‘노부’의 형상이나 사자 같은 상징물이 대신한다. 여기서 주의해 볼 것은 8개의 꽃 잎 모양이다. 이 형태는 동전에서 자주

23) 『청사(靑史, deb ther sngon po)』에 아디샤의 둘째 아들인 아와닝뽀(zla bav snying po)가 유가스승 자젠쌍외도체(sgra gcan gsang bavi rdo rie)에게 금강만다라(rdo rjevi dkyil vkhor) 관정을 청하는 장면이 나온다. 만다라가 명상용이 아닌 실제 종교 의식에 사용되었을 보여준다.(원누베(gzhon nu dpal) 저, 王啓龍, 還克加 譯, 『청사(靑史, deb ther sngon po)』,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2. 226쪽).

등장한다. 8개의 상징물인 '자시다개'도 이 모양 안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왜 8개일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여기서 8은 8방위를 나타낸다. 동전에서 8의 방위는 사방에 다시 4개를 더한 형태를 띤다. 1946년에 발행한 1전 5분의 '담까'은화의 앞면 중앙에 태극무늬를 둘러싼 8개의 문양은 마치 바퀴의 살을 연상하게 한다.

8이란 숫자는 완벽함을 나타내는 것일까? 완벽함의 추구는 동전에 새겨진 8개 문자인 '가덴포장첼래남개'의 뜻인 완전한 승리와 잘 맞아 떨어진다. 이 8개 문자는 거의 모든 동전과 지폐에서 등장한다.

이러한 형태는 만다라에서도 발견된다. (<그림 18> 참조)

다음 <그림 19>은 1909년에 발행한 쌍강고모(1냥 은화)이다. 동전의 앞면 중앙에 두 개의 사각형을 둘러싸고 원이 겹겹으로 새겨져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오른쪽의 뒷면에도 가운데 작은 원을 중심으로 8개의 점과 그것을 둘러싸고 다시 원과 8개의 점이 있고, 그리고 그 외곽에 8개의 꽃잎 모양이 새겨져 있고, 그것을 몇 개의 원이 다시 감싼 형태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앞면은 사각과 원을, 뒷면은 반복적인 원을 통해 만다라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그 모습이 오른쪽 만다라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



<그림 19> 쌍강고모와 만다라 제작. <https://en.numista.com/catalogue/tibet-1.html>

위 그림에서 드러난 만다라 형태는 사원이나 산 등을 도는 순례의 모습과 닮아 있다. 마치 순례라는 방식을 통해 만다라의 세계를 실현하는 듯하다. 어쩌면 티베트인은 사원 같은 실제적 형태와 순례라는 실천을 통해서 만다라의 세계를 나타내려고 하였을 것이다. 동전의 만다라는 이러한 관점을 미적 아름다움을 통해서 표

현하려고 한 것이다.

이런 만다라 형식은 '룬다'나 하도, 낙서와 닮아 있다. 또 17세기에 그려진 에르하르트 쉰(erhard s. shon)의 점성도와도 닮았다. 그 기본구조가 비슷하다. 어쩌면 만다라 모양은 인간이 우주를 표현하기 위한 가장 원형적이며 공통적인 표현 방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5. 맺음말

기록에 따르면 티베트가 금화를 사용한 것은 7세기이다. 지금으로부터 1400년 전이다. 당시 사용된 금화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티베트에서 자체 제작한 것인지 혹은 실크로드를 따라 유입된 것인지 밝혀진 바가 없다. 하지만 적어도 금화가 사용되었음은 확실해 보인다. 당시 금과 은이 화폐로 사용되었음은 송젠캄보가 도량형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귀금속은 곡식이나 혹은 버터나 약재를 거래하는 데에도 사용되었다. 본격적으로 귀금속이 동전의 형태로 화폐가 된 것은 7세기로부터 1000년이나 흐른 시기였다. 처음에는 네팔에서 제작된 은화를 사용하다가 점차 티베트가 직접 제작하기에 이르렀고, 그 때부터 동전에 티베트만의 독특한 문양이 새겨졌다. 그 시기는 대략 1763년부터 현 티베트 망명정부가 탄생하기 전인 1958년까지이다. 이 시기에 수 많은 동전이 발행되었으며, 다양한 문양이 동전에 새겨졌다.

동전에는 문양과 함께 문자도 새겨졌는데, 문자의 경우, 발행연도를 나타내는 '립츱'과 티베트 정부를 뜻하는 '가덴포장첼래남개'가 대표적이다. '가덴'은 도솔천이란 뜻으로 종카바가 종교를 개혁한 후 처음으로 지은 사원이 '가덴사원'이었다. 후에 '가덴'이란 용어는 5대 달라이라마에 이르러 '제뽕사원'에서 '가덴포장'이란 정부형태가 탄생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가덴포장'이란 단어에는 단순히 종교적인 뜻만 담긴 것이 아닌 티베트 정부를 상징한다. 따라서 거의 모든 동전과 지폐에 나타나는 이 용어는 티베트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여기에 자신들만의 역(曆)인 ‘립츨’을 적용했다는 것은 위와 같은 사실을 더욱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겠다.

동전에 나타난 문양으로는 해, 달, 산, 구름, 사자, 자시다개, 노부, 만다라,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극히 일부의 용이 있다. 티베트 동전은 네팔에서 발행한 소위 모하은화라고 불리는 동전을 모방한 것이다. 소위 담까은화가 그것인데, 담까은화는 1전 5분, 즉 쇼강강아에 해당하는 은화로 1640년경에 네팔의 화폐개혁 이후 티베트에 유통된 은화를 모방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동전의 문양인데, 티베트에서 발행한 담까은화의 문양은 네팔의 모하은화와 완전히 다른 형태를 띠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 전후로 발행한 만가람 은화와 직썩시리즈 은화에서 이미 네팔의 동전과는 다른 연꽃이나 자시다개 문양이나 티베트 정부를 상징하는 문자를 새겨 넣어 독자적인 체계를 추구하였다. 다만 만가람 은화의 경우 ‘개와가덴첼래남바’라는 문자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만가람 은화보다 뒤에 발행되는 대부분의 동전에 나타나는 ‘가덴포장첼래남개’와 구분된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중요한 것은 티베트가 동전을 제조할 때에 네팔의 것을 모방해서 만들었으나 동전에 적용된 문양은 티베트 고유의 문화와 역사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 점은 후대로 오면서 동전의 모양이나 문양에서 더욱 뚜렷해졌다.

동전의 수많은 문양 중에서 해, 달, 산, 구름 등은 티베트의 세계관과 관련이 있으며, 이것은 전통신앙인 ‘핀’의 모든 만물에는 영이 있다는 관념과 연결된다. 다만 이러한 전통적인 세계관이 불교전래 이후에는 불교적인 색채를 띠게 되었고 그 의미도 달라졌다는 사실이다. 즉 과거에는 단지 산과 호수 등의 신령이었던 존재들이 불교를 수호하는 존재로 인식의 변화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티베트인이 육자진언인 ‘옴마니반메훴’ 만트라를 읊조리며 산과 호수, 사원을 순례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순례는 사원을 중심으로 안과 밖으로 일어나고, 넓게는 작은 구역과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산과 호수를 도는 행위 역시 순례에 포함된다. 이렇게 도는 행위는 주로 원형을 이루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원형은 동전에서도 발견된다.

만다라가 그 원형 중의 하나이며, 사자나 태극무늬, 노부 등이 원형의 중심에 있어 만다라의 중심 역할을 한다. 만다라의 중심에는 원래 부처나 보살 혹은 중요 상징물이 배치되는데, 동전에 새겨진 문양구조와 일치한다. 동전의 중심에서 시작한 원이 밖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만다라의 세계를 완성한다. 자시다개의 경우도 8개의 상징물이 중심을 사이에 두고 배치됨으로써 또 다른 형태의 원형을 만들어 만다라의 세계를 표현한다. 마치 동전에서 순례의 힘이 작용하는 듯한 착각을 하게 한다. 이러한 문양들이 하나의 문양처럼 조화롭게 어우러져 동전을 완성한다. 마치 아름다운 만다라의 세계를 동전에 펼쳐 놓은 듯이 티베트인은 자신들의 세계를 동전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했다.

티베트인의 삶은 지극히 종교적인 색채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그 성스러움이 이미 일상의 습관처럼 전혀 색다를 것 없이 펼쳐진다. 우리는 이런 티베트 문화의 독특함을 동전 안에서도 생생하게 들여다 볼 수 있다. 가장 일상적인 것 속에 가장 성스러운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구현되어 있다.

〈參考文獻〉

- 이정환, 「삼예사원의 참(vcham)에 대한 고찰」, 『역사민속학』, 2010. 7.
 이정환, 「은화로 본 티베트 문화」, 『배재대 대학교양교육연구』, 2017. 12.
 이정환, 「티베트 토번왕조 시대의 토속종교 편 세력 연구」, 『현대중국학회』 제18집 2호, 2016. 9.
 扎雅·羅丹系饒活佛 著, 丁濤, 拉巴次旦 譯, 『藏族文化中的佛教象征符号』, 中國藏學出版社, 2008.
 曹剛 著, 『中國西藏地方貨幣』, 四川民族出版社, 1999.
 선누배(gzhon nu dpal) 著, 王啓龍, 還克加 譯, 『청사(靑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2.
 닥충오마빠조쌍보 著, 陳慶英 譯, 『漢藏史集(rgya bod yig tshang)』, 西藏人民出版社, 1986. 12.
 바오줄락첵와(dpav bo gtsug lag vphreng ba) 著, 黃顯, 周潤年 譯, 캐메까뉘(mkhas pvi dgav ston)-토번사(bod kyi rgyal rabs), 中央民族大學出版社, 2010.

- 恰白·次旦平措, 諾章·吳堅, 平措次仁 著, 陳慶英, 格桑益西, 何宗英, 許德存 譯. 『西藏通史(bod kyi lo rgyus rags rim g'yu yi phreng ba)』(上). 西藏社會科學院. 2004.
- [英]羅伯特·比爾 著, 向紅筍 譯. 『藏傳佛教象征符号与器物圖解』. 中國藏學出版社. 2007.
- 潘世杰, 「西藏鑄幣史話」, 『收藏家』, 2011.09期.
- 張武一, 王家鳳, 「乾隆寶藏銀錢學術價值概說」, 『南亞研究』, 2008, 2期.
- 蒙海華, 金普軍, 毛振偉. 「西藏銅幣發展史簡述」, 『東南文化』. 第1期總第189期, 2006.
- 金普軍, 凌雪. 「西藏銅幣上佛教紋飾研究」, 『宗教學研究』, 2007.
- 劉杰, 李曉峇, 楊君, 周衛榮. 「西藏雪岡銅幣的初步研究」, 『广西民族大學學報』. 第21卷第1期, 2015.
- 錢嶼, 《清代西藏銀幣的幣文》, 中國錢幣, 1989, 3, 26.
http://www.sohu.com/a/73196982_351361
<https://www.numisbids.com/n.php?p=sale&sid=2325&cid=62296>
<https://read01.com/zh-my/AoyDkE.html#.WcpaANRJaUk>
<https://read01.com/AoyDkE.html>
<https://www.spink.com/press-releases/rare-tibetan-coins>
<https://en.numista.com/catalogue/tibet-1.html>

〈국문초록〉

본 연구는 티베트 동전에 나타난 문양에 관한 연구이다. 티베트 동전에는 금화, 은화, 동화가 있으며, 그 중 금화는 매우 적고, 대부분 은화와 동화이다. 티베트에서 은화의 사용은 동화보다 이르며 보편적이었다. 처음 티베트에서 사용된 은화는 네팔에서 만든 모하은화였으며, 자체적으로 제작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에 이르러서였다. 이 시기에 제작된 것이 담까은화와 직썬시리즈 은화였으며 그 형태나 새겨진 문양이 네팔의 것과는 달랐으며, 이것은 후에 등장한 동화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동전에 새겨진 문양으로는 해, 달, 산, 구름, 사자, 만다라, 노부, 자시다개가 있다. 해, 달, 산, 구름, 사자는 불교 이전의 티베트 전통신앙인 쾨과 관련이 있고, 노부는 보물이란 뜻으로 존귀한 대상에 대한 명칭에 붙여 사용한다. 동전에서는 중앙에 단독으로 나타난다. 만다라는 동전의 대부분에서 발견되며 티베트의 세계관을 잘 나타낸 것이다.

자시다개는 보병, 룬, 우산, 물고기, 승리당, 연꽃, 하얀 소라, 길상매듭의 8가지로 구성된 상징물이다. 이 상징물은 불교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중에서 룬은 부처의 초전법륜과 관련되어 있는데, 초기의 동전부터 줄곧 사용된 문양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징물이 어떤 동전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며,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하였다. 그 결과 티베트 동전에 나타난 문양은 티베트의 역사, 문화, 종교, 사상 등이 담겨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티베트, 동전, 문양, 문화, 만다라, 노부, 자시다개

〈Abstract〉

A Study on the Pattern of Tibetan Coins

Lee, Jung-Huan

This study is about the pattern on the Tibetan coins. Tibetan coins have gold coins, silver coins, copper coins. Among them, gold coins are very few, most of them are silver and copper coins. In Tibet, the use of silver coins was more common than copper coins.

The silver coin that was first used in Tibet was Moha silver made in Nepal, and it was in the 18th century that Tibet began to produce its own silver coins. 'Tam ka' silver coins and silver coins of the 'cig sums' series were made at this time, and its shape and engraved patterns were different from those of Nepal, which was also applied to the later copper coins.

The pattern on the Tibetan coins include sun, moon, mountain, cloud, lion, mandala, 'nor bu', 'bkra shis rtags brgyad'. The sun, moon, mountain, cloud, and lion are associated with pre-Buddhist Tibetan traditional beliefs(Bon). Nor bu means "treasure", and is used in the name of the precious object. In a coin, it appears alone in the center. Mandala is found in most of the coins and is a good representation of Tibetan world view.

'bkra shis rtags bygyad' is the Tibetan lucky symbol composed of 8 kinds of gter gyi bum pa, vkhor lo, gdugs, gser nya, rgyal mtshan, pad ma, dung g'yas vkhyil and dpal bevu. This symbol has a very close relationship with Buddhism. Of these, the wheel(vkhor lo) is related to the first turning of the wheel of the Dharma, which have been used ever since the early coins.

In this study, we tried to see what kind of symbol have on some coins and what their meanings are. As a result, we could see that the pattern on the Tibetan coins contains the history, culture, religion and ideology of Tibet.

Key words: tibet, coin, pattern, culture, mandala, nor bu, bkra shis rtags bygyad

이 논문은 2018년 7월 10일에 접수되어 2018년 8월 5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8년 8월 1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